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1호 [부제 제25474호] 주제 105 (2016)년 11월 26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045군부대 관하 산악보병대대의 스키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045군부대  
관하 산악보병대대의 스키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훈련을  
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훈련장에서 군부대의 지휘관  
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장에 정렬한 산악보  
병대대 군인들의 미더운  
모습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같이  
글썩하다고, 앞으로 땅의 훈련방침과  
훈련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펄펄 나는 싸움꾼,  
산악의 맹호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  
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훈련을 시작함에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훈련지휘관의 구령이 내리자  
아찔한 산악정경에 불시에 나타난  
군인들이



훈련과제를 훌륭히 수행함  
으로써 《훈련도 전투다!》  
라는 땅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정시의 훈련에서  
번마레운 자기들의 전투적  
기상을 잘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이 우리 당의 주체전법  
의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  
하시면서 산악보병대대의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힘찬 산발들이 병풍처  
럼 둘러싸여있고 눈이 많  
이 내리는 우리 나라에서  
산악보병들이 수행하게  
되는 전투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산  
악보병부대들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  
하시였다.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를 펴편 휘날  
리며 급경사면을 따라 스키를 타고  
우박처럼 쏟아져내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일단  
명령을 내리신다면 남조선전역을 단  
숨에 타고앉을 멸적의 기상을 안고  
눈갈기를 날리며 손살같이 날아내리  
는 산악보병들이 미처우리는  
《만세!》의 함성이 산발을 타고 메아  
리쳐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전투행동조법들을 원민히

수행하며 질풍같이 지쳐내리는 군인  
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산악보병  
들이 훈련을 정말 질한다고 지하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전  
의 요구와 공격 및 방어작전지대의  
특성에 맞게 산악보병훈련의 형식과  
방법을 집적으로 부단히 개선하고 실  
전적훈련에 대한 요구성을 최대한 높  
여 군인들의 사격술과 산악극복 및  
산악행군능력, 습격능력과 야전생존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산악보  
병들은 유사시 전투행동지대안의 산  
악을 주름잡으며 적들이 미처 정신을  
차릴새없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  
며 이리 치고 저리 달세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은 가장 험한 지형  
지물을 리용하여 산악전투훈련을 실  
전과 같이 조직진행함으로써 산악보  
병들의 용감성과 민첩성을 키워주어  
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산악보병대대의 군인들은 어떠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훈련지도를  
받은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제1045  
군부대관하 산악보병대대의 군인들은  
천리해안의 예지와 선견지명으로 싸움  
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대대같은 은덕  
을 베풀어주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  
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결사판철할  
불라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지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 1045군부대 관하 산악보병대대의 스키훈련을 지도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 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격려적서한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 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격려적서한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임무와 직능조직들의 과업》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마스 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 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격려적서한을 보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서한에서 조선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모든것을 자기 손으로 남들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수입병이라는 말자체를 없애버릴데 대해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직업동맹이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직업동맹이 조국통일교섭과 방청선원에 양장되며 반미자화, 사회의 민주화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17일 루마니아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2017년 배두산위원장총대회 루마니아에서 열린 회고위원회 위원장 자위드 야호마드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출판 보도하며 널리 소개선전하며 토론회, 회고보급, 영화상영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출판 보도하며 널리 소개선전하며 토론회, 회고보급, 영화상영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출판 보도하며 널리 소개선전하며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출판 보도하며 널리 소개선전하며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 사설 모두 다 필승의 신심드높이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함북도 북부지역에서 전과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한 공저들이 사회주의조선의 필승의 기상과 무한대한 힘을 만련하여 떨치며 계속혁명의 한길로 뚫고나가 가고있다. 200일전투의 승리가 가까와올수록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정신력이 비상히 고조되고있다.

나는 오늘 새 기준, 새 기록을 세웠는가, 나는 오늘 만리마를 뚫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최대로 폭발시키나가고있는것이 총진군대오의 약봉하는 모습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의 양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안일과 태이, 침체와 탐보를 철저히 배격하며 200일전투의 결승선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내달려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인민이다. 성패에 지만 하거나 난관에 굴하지 않고 왕성한 투지와 폐기와 정열을 넘쳐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질이다.

혁명은 세계질서 없다. 장기성을 띠는 혁명의 길에서 순간의 주저나 답보는 금물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는 더 큰 승리를 위한 출발선이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혁명의 위대한 실기도따라 힘차게 나아가며 지강력을 억척같이 다지고 최상의 문명을 최대의 속도로 일당겨 나가는 만리마진군의 시대는 사소한 안일태이와 나약성도 허용하지 않는다. 앞선 단위, 앞선 사람도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기 위하여 계속 분발하지 않으면 순간에 전진하는 대오에서 떨어지게 되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늘 수조만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앞에 집결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

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으려고 고립과 제재, 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며 최후발악하고있다. 국외의 경제지적난을 조성하는것과 함께 만동적인 사상문화를 집요하게 불어넣어 우리 인민의 강대한 신념과 의지를 흔들어놓으려는것이 적들의 주된 목적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밖에서 달려드는 원수들보다 혁명하는 인민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안일태이와 나약성이 최대의 적이다.

현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신념을 더 바짝 조이고 최대의 마력을 내어 뽐내야만 하며 인민이 만성을 지고 총진군대오의 약봉하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 혁명적기질을 발휘하며 200일전투의 결승선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내달려야 한다.

혁명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신념을 더 바짝 조이고 최대의 마력을 내어 뽐내야만 하며 인민이 만성을 지고 총진군대오의 약봉하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 혁명적기질을 발휘하며 200일전투의 결승선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내달려야 한다.

혁명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신념을 더 바짝 조이고 최대의 마력을 내어 뽐내야만 하며 인민이 만성을 지고 총진군대오의 약봉하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 혁명적기질을 발휘하며 200일전투의 결승선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내달려야 한다.

한다는 신념을 억척같이 지니고 불후의 명작 《남산의 푸른 소나무》와 노래 《영원히 한길로 가리라》를 높이 부르며 당이 정해진 조선혁명의 원로마라 뚫고나가야 한다.

오늘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한다는 것은 곧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삶에 투쟁한다는것이다.

우리의 혁명의 1세대들의 참된 삶은 당과 수명, 조국과 인민을 총직하게 받드는 전사의 신념은 시작은 있어도 끝을 없애야 하며 인생의 정통기에는 나날이 투쟁해야 한다는것을 깊이 새겨두고있다. 우리는 비록 총포탄이 울부짖지 않아도 입버와 마음을 항일의 전구와 같이 여기고 오직 당과 수명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최후승리를 위하여 한숨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항일투사들처럼 부락지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년 스러지면 백년 다시 일어나 싸우는 전구적 신념을 지니고 마지막에 한방울 다 다투고 싸우려는 투쟁정신을 보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혁명적이며 투쟁적인 투쟁기풍이 차넘치게 하는데서 일군들과 당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일군들은 만리마진군의 기마수이며 당원들은 혁명의 선봉투사, 전위 기수이다.

일군들은 어떤 직급에서 일하는 오직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 사회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간직하고 왕성한 투지와 폐기와 정열을 넘쳐 강하게 전진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200일전투의 승리를 위한 총동결의 앞장에서 누구보다 더욱 분발하여 자기 단위의 사업을 무반히 혁신해나가는 자이어야 한다. 사소한 나약성과 나약성, 소극성, 보수주의, 보수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와 낡은 습관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사나운 남바다우에서 당쟁적기풍을







